

현대중국어 무표지 빈어 전치문 NP2의 정보구조 연구*

서진현**

목 차

1. 서론
2. Lambrecht(1994)의 정보구조
3. 무표지 빈어 전치문 NP2의 정보구조
 - 1) OSV형 NP2의 정보구조
 - 2) SOV형 NP2의 정보구조
4. 결론

국문초록

본 연구에서는 담화 속 무표지 빈어 전치문인 OSV형 문장과 SOV형 문장구조 중 'O'에 해당하는 NP2 성분의 정보구조를 Lambrecht(1994)가 제시한 (1) 확인가능성과 활성화 (2) 주제와 초점에 따라 분석하여 문형 간의 차이점을 고찰하였다.

OSV형과 SOV형 문장에서 'O'에 해당하는 전치된 NP2 성분은 표현 형태에 관계없이 모두 확인 가능하며 '활성'상태를 지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OSV형에서 NP2성분은 화·청자 사이에 공유된 지식으로, 주제로서의 용인가능성이 높아져 화용적 전제에 포함되는 '주제'가 된다. SOV형에서 NP2성분은 주어와 술어 사이에 위치하여 대비라는 주제적 성질을 가지지만 화용적 단언에 포함된다. SOV형에서 NP2성분은 '주제초점'성분으로 문장 전체의 초점인 문미 초점에는 영향을 끼치지 않지만, 여전히 초점

* 이 논문은 2020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20S1A5B5A16083227)

** 전북대학교 중국·아시아연구소 학술연구교수

의 영역에 포함되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키워드: 현대중국어, 무표지 빈어 전치문, 정보구조, SOV, OSV, NP2

1. 서론

‘전치(前置)’라는 개념은 일반언어학의 ‘좌측 전위(left dislocation)’로 한 문장 내에서 어휘적으로 지배되거나 하위범주화되는 구(Phrase)성분이 정형적인 위치로부터 좌측으로 이동해 문두(句首)에 위치하는 것이다(Birner & Ward, 1998; Ward & Birner, 2004). 현대중국어는 형태적 표지 없이 일반적으로 NP1(주어, S)+ VP(술어, V)+ NP2(빈어, O) 순인 SVO형으로 어순이 구성된다. 그러나 모든 문장이 SVO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때때로 빈어가 문두로 전치된 OSV형이나 술어 앞으로 전치된 SOV형의 문장들을 사용하기도 한다.

Lambrecht(1994/2000:18)는 ‘주어진 담화 맥락에서 사태의 개념적 표상으로서의 명제가 대화 참여자들의 심리 상태에 따라 어휘 문법적 구조와 짝지어지는 문장 문법의 한 부분’이 정보구조라고 하였다. 徐烈炯(2001:17)도 중국어에서는 가장 큰 정보 혹은 신정보를 문장 말미에 두거나 그 어순을 변화하여 화자가 전달하고자 하는 바인 초점을 나타낸다고 보았다. 즉, 문장형식 변화는 화용적으로 화자가 담화맥락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정보를 가장 효과적으로 청자에게 전달하기 위한 것이다.¹⁾

그렇다면 (1) SVO형에서 두 가지 문장형식인 OSV형과 SOV형이라는 서로 다른 형식을 선택하게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2) 서로 다른 문장형식에서 전치 성분인 NP2의 정보구조는 무엇일까? 이 글에서는 이러한 의문점을 해결하기 위해 먼저 생략된 성분 없이 문장 내에 모든 필수성분을 다 갖추고 있지

1) 서진현(2018:16)에서 참조.

만, 빈어가 문미(句尾)자리가 아닌 술어 앞으로 이동하여 문두 혹은 주어와 술어 사이에 위치하는 문장을 빈어 전치문이라 하기로 한다. 또한 빈어 전치문 중에서도 전치된 빈어 앞에 ‘連’자나 ‘把’자와 같은 표지를 사용하지 않고, 순수하게 빈어만 술어 앞으로 전치된 무표지(unmarked) 빈어 전치문 속 NP2 성분의 정보구조를 분석하여 OSV형과 OSV형의 차이를 고찰해보고자 한다.

빈어 전치문에 대한 연구는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으나 대부분 문장 단위로 분석이 이루어져 한 문장에 여러 가정을 제시하여 담화 맥락에서의 분석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고, 빈어 지시체(referent)의 활성화(activation) 정도에 대한 문제 및 무표지 빈어 전치문 간의 차이가 무엇인지에 대한 고찰도 이루어지지 않았다²⁾. 이 글에서는 단일문장이 아닌 《家有兒女(第一部)》³⁾를 연구범위로 삼아 무표지 빈어 전치문을 중심으로 화자의 정확한 의도를 파악하여 OSV형과 SOV형 정보구조의 차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2. Lambrecht(1994)의 정보구조

Lambrecht(1994/2000:438)는 정보구조를 두 가지로 구분하였다. 그 첫째는 ‘확인 가능성(identifiability)과 활성화(activation)’, 둘째는 ‘주제(topic)와 초점(focus)’이다.

이 중에서 첫 번째 부류인 ‘확인 가능성과 활성화’는 발화 시에 청자의 마음에 담화 지시체(referent)의 심적 표상의 상태⁴⁾ 즉, 담화에서 명사구 실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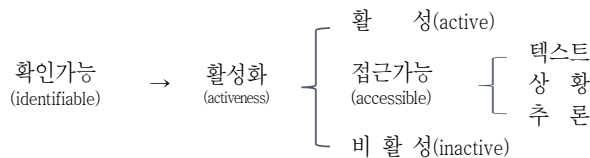
2) 김종호(2005), 김세미(2009), 이은경(2015) 등

3) 실제 담화 속에서 분석하기 위해 《家有兒女(第一部)》의 예문을 사용하였다. 이 드라마의 시나리오는 그 시대적 배경이 현재이고, 중심인물들이 표준어를 사용하며, 일상적 대화로 이루어진다. 또한 드라마 방영 내용이 중국어 교육을 위한 책으로도 출판되어 있어 대화 내용을 더욱 정확히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녀 분석대상 텍스트로 선정하였다.

4) 지식과 의식이라는 두 가지 심리적 요인에 의해 결정된다. 지식의 요인은 청자가 발화 시에 주어진 실체나 명제를 이미 알고 있는지에 대한 화자의 추정과 관련되고, 실체나

와 명제를 포함한 지시체가 청자에게 어떠한 인지적 상태를 가지는지에 대한 것이다. 특히 ‘확인가능성’은 Prince(1992)가 제시한 ‘청자 지식’과 ‘담화’라는 두 가지 기준⁵⁾에 비춰볼 때, 선행담화에서 이미 주어진 요소로 청자의 기억이나 지식에 편입되었거나 청자가 본래 가진 지식체계에 장기기억으로 주어진 지시체를 나타내며 여기에 속하는 지시체는 활성화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담화-구·청자-구’의 지위를 가진 지시체 혹은 선행담화에서 주어지지 않았지만, 청자의 장기기억에 지시체의 정보가 존재하여 청자에게는 이미 주어져 있는 정보이지만 담화에서는 새롭게 제시된 실체인 ‘담화-신·청자-구’라는 지위를 의미하는 것이다. Lambrecht(1994/2000:143)는 이렇게 지시체가 확인 가능한 상태일 때 반드시 ‘활성화’라는 상태로 ‘활성’, ‘접근가능’, ‘비활성’이 세 가지 중의 하나에 해당한다고 하였다.

Lambrecht(1994)의 확인가능성과 활성화 체계



그가 제시한 ‘활성화’ 상태는 문장에서 지시체의 형식과 상관관계가 있는

사태에 대한 지식이 있다는 것은 마음에 그 표상이 있다는 것으로 이해된다. 이 심적 표상을 가지고 있다고 추정되는 실체는 확인가능한 것이라 하고, 청자가 심적 표상을 가지고 있다고 추정되는 명제는 전제된 것이라고 한다. 의식의 요인은 청자가 발화 시에 대상이나 명제에 대해 의식하는지에 대한 화자의 추정과 관련된다. 그 표상이 현재 청자 의식의 중심에 있는 실체나 명제는 담화-활성적이라고 한다. (Lambrecht 1994/2000:19,437-438 참조.)

- 5) ‘청자 지식’과 ‘담화’라는 두 가지 기준에 의해 주어짐성(giveness)을 판단하고 나아가 두 기준인 청자의 지식과 담화의 구/신을 나누어 분류하였다. 청자-구/신의 기준은 화자가 가정하기에 명사구가 가리키는 지시체가 청자의 머릿속에 이미 주어져 있는지와 관련된다. 담화라는 기준은 화자가 가정하기에 해당 명사구가 가리키는 지시체가 담화에서 이미 주어져 있는지와 관련된다. (Prince, 1992:300 참조.)

데, 모든 대명사적 표현은 활성화 지시체를 가진다. ‘접근가능’상태는 환기된 도식 내에서 어떤 의미적 관계의 존재, 상황적 맥락의 출현, 맥락적 요소 때문에 지시체가 완전히 비활성적인 지시체보다 청자의 마음에 더 쉽게 상기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활성’에 대한 잠재성을 가진 지위이다.⁶⁾ 마지막으로 ‘비활성’이라는 상태는 Prince(1992)가 제시한 ‘미사용(unused)’와 동일한 개념으로 청자의 마음에 이미 저장되어 있지만 ‘활성화’되지 않은 상태⁷⁾를 의미한다.

특히 Lambrecht(1994/2000:146)는 대명사적 기호화는 지시체의 ‘활성’에 대한 충분조건이라는 점을 덧붙였다. 모든 ‘활성’ 상태의 모든 지시체가 대명사로 기호화 되지는 않지만, 형태적으로 대명사로 기호화된 경우에는 ‘활성’ 상태임을 나타낸다는 것이다. 이처럼 ‘확인가능성’과 ‘활성화’의 매개변수는 정보기능의 표현을 위한 선결 조건임을 나타낸다.⁸⁾

둘째로, ‘주제(topic)와 초점(focus)’부류는 주어진 담화 상황에서 명제와 그 요소들 사이의 관계성에 대한 상대적 예측 가능성과 예측 불가능성에 대한 화자의 평가와 관계된다.⁹⁾ Lambrecht(1994/2000:282, 438)는 주제와 초점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주제: 명제와 담화 실체 사이의 대하여성(aboutness)을 갖는 관계로, 명제는 대상과 관련해서 청자의 지식을 늘리는 것으로 이해되면, 대상에 대한 것으로 해석되는 부분이다. 또한 발화 당시 현재 논의

6) Lambrecht(1994/2000:141) 참조.

7) Lambrecht(1994/2000:145) 참조.

8) A: I'm looking for a book. B: I found **one**.

A와 B의 대화에서 B가 언급한 ‘one’은 대명사적 형태로 문장에 사용되어 활성화되며 확인가능한 것이라 처리된다. 또한 문장에서 사용된 표현 형태를 통해 담화시 해당 지시체가 화자에게 어떤 인지적 상태를 지니는지 즉, 정보지위가 무엇인지를 파악할 수 있고, 청자에게도 어떠한 인지적 상태를 지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그래서 담화 지시체의 순간적인 인지 상태(활성화와 확인가능성)를 살펴보는 것이 주제와 초점을 파악하는 것에 우선되어야 한다.(Lambrecht 1994/2000:144,151,152 참조.)

9) Lambrecht(1994/2000:19) 참조.

중인 것으로 받아들여져야 하며, 담화 세계에 존재하는 것이다.

초점: 단언이 전제¹⁰⁾와 구별되게 하는 화용적으로 구조화된 명제의 의미부분.

주제는 발화에서 새로운 정보가 부가되는 이미 설정된 현재의 관심사이기 때문에 명제가 주제 지시체에 대한 것으로 이해되기 위해서는 해당 지시체가 반드시 화용적 전제의 일부이어야 한다. 그래서 주제 지시체는 ‘활성화’ 상태에 따라 다음과 같은 용인가능성 등급을 갖는다.

Lambrecht(1994/2000:220)의 주제 용인가능성 등급 :

가장 용인가능 >>  >> 가장 덜 용인 가능

활성(active) > 접근가능(accessible) > 미사용(unused) > 최신의 고정된(anchor) > 최신의 비-고정된(anchorless)

주제 지시체의 정보상태가 용인가능성 등급에서 가장 높은 ‘활성’일수록 청자가 해당 지시체에 대한 추가적인 처리 과정 없이 바로 인식할 수 있다. 그래서 주제에는 ‘활성’된 상태의 지시체가 선호된다. ‘접근가능한’ 지시체도 실제로 자주 사용되는 주제 표현으로 해당 명제를 해석하는 데 있어 기억, 추론 등을 통한 정보처리 과정이 함께 수반되어야 인지적으로 용인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비활성화된 ‘미사용’ 상태의 지시체를 주제에 사용한다면 그 주제에 대한 명제적 정보를 처리하는 것 이외에 담화에서 주제 자체의 지시체가 무엇인지부터 확인해야 하는 상당한 인지적인 노력이 필요하게 된다. 이는 주제라는 것은 청자에게 확인 가능해야 하며 ‘활성화’ 정도가 일정 정도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의미이다.¹¹⁾

10) 전제는 화용적 전제로 문장이 발화될 때 청자가 이미 알고 있거나 당연한 것으로 생각할 것이라고 화자가 추정하는, 문장에서 어휘 문법적으로 환기되는 명제들의 집합이다. 단언은 화용적 단언으로 청자가 발화된 문장을 들은 결과 알 것이라고 또는 당연한 것으로 간주할 것이라고 기대되는 문장에 의해 표현된 명제이다. 서술어 초점구조인 “(我的車) [壞了]。”라는 문장에서 전제는 ‘화자의 차는 X를 진술하는 주제가 된다.’가 되고, 단언은 ‘X=壞了’가 된다. (Lambrecht 1994/2000:75,294 참조.)

11) “*A boy is tall.”이라는 문장은 미확인 주어 지시체의 키를 서술하는 문장으로, 비한정 명사구인 ‘a boy’가 총칭적인 지시체를 가지는 주제로 해석될 수 없기 때문이다.

Lambrecht(1994)가 제시한 정보구조의 첫 번째 부류인 실체의 심적 표상 즉, 인지적 상태를 통해 담화에 제시된 지시체의 형태에 따라 ‘확인가능성’과 ‘활성’ 정도라는 정보구조를 살펴볼 수 있다. 또한 두 번째 부류인 외연의미와 명제 사이의 화용적 관계를 고찰함으로써 화자가 문장에서 어떤 부분에 정보적 가치를 부여하고자 했는지를 분석할 수 있게 된다.

3. 무표지 빈어 전치문 NP2의 정보구조

3장에서는 빈어 전치문 중 어떠한 표지를 지니지 않은 문두 자리인 주어 앞으로 전치된 NP2+ NP1 + VP(OSV형)과 주어와 술어 사이로 전치된 NP1 + NP2 + VP(SOV형) 빈어 전치문 중 NP2 성분의 정보구조를 살펴보고자 한다.¹²⁾

1) OSV형 NP2의 정보구조

OSV형에서 문두에 오는 NP2는 대명사, 명사구, 원형명사(bare noun)형식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A boy in my class is real tall.”이라는 문장은 용인가능한데, 이는 비한정 명사구 ‘a boy’에 ‘in my class’라는 구를 부가함으로써 담화 세계에 있는 모든 소년이라는 불특정 집합이 화자의 하급에 있는 모든 소년이라는 훨씬 더 적은 집합으로 축소되었다. 화자는 이 집합의 성원으로 그 지시체는 더 확인가능해져 더 쉽게 주제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Lambrecht 1994/2000:220-223 참조.)

- 12) 어떠한 문장 구조를 가지고 있던지 음운 강세라는 장치로 현저성(突出性)을 부여하여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기능을 갖는다. 그러나 이 글에서는 문장구조가 변화하게 된 연유를 고찰하고자 하기에 음운 강세를 제외한 담화를 통한 문장구조만을 가지고 담화 맥락을 통해 해당 문장구조를 갖게 되는 가장 기본적인 정보구조를 분석하기로 한다.

(1) NP2가 대명사인 경우

지시사는 발화에서 주어진 정보인 화시소(dexis) 혹은 텍스트에서 주어진 정보인 조응어(anaphor)로 기능한다.¹³⁾ Lambrecht(1994/2000:138)도 대명사의 사용은 청자가 문맥적 단서로부터 지시체를 추론할 수 있다는 화자의 가정을 나타낸다고 하였다.

[1] 胡一統：你們都這麼歡迎我啊？

夏 雨：劉星，報仇了嗎？

劉 星：這我得問我爸。

→ (這_i)[我得問我爸_j]¹⁴⁾

劉星의 발화에서 “這我得問我爸。”라고 하였는데 이는 술어 ‘問’의 빈어인 ‘這’가 문두로 전치된 문장이다. 담화에서 표현된 형태로 볼 때 직시적(deictic) 지시인 경우에 지시체는 발화 상황에서 눈으로 볼 수 있거나 두드러지기 때문에 확인이 가능하다고 추정할 수 있다.¹⁵⁾ 또한 대명사 형식을 통한 발화는 청자가 문맥적 단서로부터 지시체를 추론할 수 있다는 화자의 가정을 나타낸다. 그래서 Lambrecht(1994/2000:129,134)는 대명사로 표현된 지시체는 활성화 지시체를 가진 것으로 활성화에 대한 가장 명백한 증거라고 하였다. 이에 비추어 볼 때, 예문[1]의 劉星의 발화 중 ‘這’는 확인가능하고, ‘활성화’된 인지적 상태이다. 또한 Chafe(1987:26)는 화자에게 있어서 이미 활성화되고, 화자가 청자에게도 활성화될 것이라고 판단하는 개념들은 특별한 방법으로 표현되는데, 가장 일반적인 표현방법은 주어진 개념들을 약화된 발음으로 말하는 것이며, 그것은 전형적으로 대명사화나 발화에서의 생략을 가져온다

13) 최윤지(2016:64) 참조.

14) 이 글에서 ‘(_i)’는 화용적 전제로 주제(Topic)를 나타내고, ‘[_j]’는 화용적 단언에 해당하는 초점(Focus)을 나타내며, ‘[_{ij}]’는 화용적 단언 안에서 대비의 의미를 지니는 주제초점(Topic Focus)을 나타내기로 한다.

15) Lambrecht(1994/2000:138) 참조.

고 하였다. 이에 따르면 예문[1]에서 대명사로 표현된 ‘這’ 역시 활성화된 상태를 지닌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這’의 외연의미와 명제 사이의 화용적 관계는 무엇일까? Lambrecht가 제시한대로 “這我得問我爺。”라는 문장의 전제는 ‘화자가 말한 복수하는 일(報仇)은 X를 진술하는 주제가 된다.’ 즉, ‘這’라는 대명사 형태를 사용함으로써 화청자 모두에게 지시체의 존재가 화용적으로 당연시되어, 문장에서 ‘我得問我爺’는 ‘這’가 가리키는 복수하는 일에 대한 평언(comment)이 된다.

이러한 점으로 미루어보아 예문[1]의 ‘這’와 같이 문두에 위치한 NP2가 대명사로 표현된 경우에는 해당 지시체가 ‘확인가능’하고, ‘활성’상태이며, 주제임을 알 수 있다.

(2) NP2가 명사구인 경우

담화에서 청자가 화자가 표현하는 실체가 무엇인지 인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어휘적 정보를 추가적으로 제공하여 표현한다. 명사구 형태로 표현된 NP2가 문두에 사용된 경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 夏 雪：奧，對了，還有那個叫劉星的那孩子，他欺負過你嗎？
 劉 星：乖乖女！你放心，我是不會欺負你的。這一點我可以向你保證。
 → (這一點)_i[我可以向你保證]_i

[3] 劉 梅：哎哎哎，我可告訴你，你再在這兒神經過敏、無事生非，你當心，那些神探方面的書，我都給你沒收了。
 劉 星：爸。
 夏東海：我完全同意媽媽的意見。
 → (那些神探方面的書)_i, [我都給你沒收了]_i

현대중국어에서 비한정명사구인 수량구는 일반적으로 문두에 놓일 수 없

다. ‘這/那’는 한정적 표지로 일반명사구를 한정적으로 변화시켜 영어의 정관사 역할을 하게 한다.¹⁶⁾ 이처럼 예문[2-3]에서는 모두 ‘這/那’의 수식을 받아 ‘這一點’과 ‘那些神探方面的書(저 명탐정관련 책들)’인 한정명사구가 문두에 제시되었다. 한정명사구 형태로 담화에 제시되었다는 것은 지시체가 문장에서 표현 형식을 통해 ‘확인가능’하며, ‘활성’상태임을 나타낸다.

주제 지시체가 ‘활성화’ 상태라는 것은 주제로의 용인가능성이 높게 나타나기 때문에 담화의 주제가 될 경향성이 높다. 또한 예문[2]에서 劉星의 “這一點我可以向你保證。(이건 내가 너한테 보증할게)”라는 발화의 전제는 ‘劉星이 夏雪를 괴롭히지 않겠다는 점은 X의 주제이다.’가 된다. 예문[3]에서도 “那些神探方面的書, 我都給你沒收了。(저 명탐정 관련 책들은 내가 다 몰수했어)”의 전제는 ‘명탐정관련 책들은 X의 주제이다.’가 된다. 이렇게 주제로서의 용인가능성이 높은 형태로 문장에서 표현되며, 전제를 살펴봐도 문장의 문두에 제시된 명사구가 주제가 된다. 예문[2-3]은 모두 주제-평언의 구조로, 문두에 제시된 ‘這一點’과 ‘那些神探方面的書’가 각 담화에서의 주제이며, 뒤따르는 NP1+VP로 이루어진 부분이 각 주제에 대한 설명인 평언이다.

이처럼 문두에 전치된 NP2가 명사구 형태 특히 한정명사구 형태로 제시된 경우에는 해당 지시체가 ‘확인가능’하고, ‘활성’상태이며 주제로서의 용인 가능성이 높아 주제인 것으로 나타났다.

(3) NP2가 원형명사인 경우

- [4] 刘星：这是我和我爸在香山的。
 夏雪：这是我和我妈在北海的。
 刘星：这是骑马的。
 夏雪：这是划船的。
 夏雨：合影我都贴完了，再贴就该贴我自己的了。
 → (合影) [我都贴完了]

16) 曹逢甫(1986:24,82) 참조.

夏雨가 언급한 “合影我都貼完了。(단체사진은 내가 다 붙였어)”라는 문장에서 NP2에 해당하는 ‘合影’이 문두로 전치되었다. 劉星, 夏雪, 夏雨 셋이서 사진에 대한 설명을 하는 상황에서 맥락적으로 ‘合影’은 접근 가능한 ‘활성화’ 상태를 지닌다. 뿐만 아니라 Li & Thompson(1989/2008:19)은 주체어, 주어, 빈어가 동사 앞에 위치하면 그것은 한정적(definite)이라고 하였다. 예문[4]의 夏雨가 언급한 ‘合影’은 형태적으로 활성화 정도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지만, 문장에서 술어 앞에 위치하게 하여 주체로 인상하는 방법을 통해, 화자인 夏雨와 청자인 夏雪, 劉星 사이에 ‘合影’의 존재적 전제가 공유되어, 대명사로 표현한 것과 같은 한정성을 갖게 된다. 즉, 존재적 전제가 공유되었다는 것은 청자와 화자 모두에게 어떤 지시체인지 충분히 인지되어 있으므로, 해당 지시체가 ‘활성’상태임을 나타낸다. ‘合影’의 문두로 전치는 해당지시체가 ‘접근가능’한 상태에서 ‘활성’상태로의 상승을 가리킨다.

- [5] 劉星：哎喲，你能不能別用這調說話呀？真受不了。
 夏雨：這叫紳士風度。天氣預報你聽了嗎？我有聽。今天天氣好好
 哦，哇塞，我好開心哦。我出去玩兒了，後會有期。
 夏雪：劉星，剛才咱們家有什麼鳥亂叫喚呢？
 劉星：剛才小於那小子學港台歌星，還說自己要當個什麼紳士。
 → (天气預報) [你听了嗎]

夏雨의 발화에서 ‘天氣預報’는 원형명사로 문장에서 술어 ‘聽’의 NP2 성분이 문두로 전치되었다. 이 지시체는 ‘확인가능’ 하지만, ‘활성화’ 정도는 표현된 형태만으로는 확인하기 어렵다. 예문[4]에서와 마찬가지로 빈어 성분이 술어 뒤가 아닌 술어 앞으로 이동했기 때문에 화자와 청자에게 해당 지시체의 존재가 공유된 ‘활성’상태이다.

예문[4-5]에서 살펴본 원형명사 형태의 문두의 ‘合影’과 ‘天氣預報’는 현재 청자의 의식 중심에 있는 실체로 담화-활성적¹⁷⁾인 특징을 갖는다. 이로 인하

17) 예문[4]의 ‘合影’은 Prince(1992)가 제시한 ‘담화-구·청자-구’라는 정보 지위로 예문

여 두 지시체는 모두 주제로서의 용인 가능성이 높은 실체로 나타난다. Firbas(1966)는 발화 내 여러 가지 상이한 요소들 사이에 나타나는 소통 가치의 변화를 의사소통의 역동성(CD:Communicative Dynamism)이라 하며 문장 요소가 지니는 CD값의 정도에 따라 낮은 CD값을 갖는 성분은 주제가 되고, 가장 높은 CD값을 갖는 성분은 평언이 된다고 보았다.¹⁸⁾ ‘曇影’과 ‘天氣預報’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담화-활성적인 지시체로 정보량이 가장 낮으므로 CD값이 낮아 주제가 된다. Lambrecht가 제시한 전제라는 개념을 통해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는데, 예문[4]와 예문[5]의 전제는 각각 ‘曇影은 X의 주제이다.’와 ‘天氣預報는 X의 주제이다.’가 된다. 이처럼 문두로 전치된 NP2가 원형명사로 표현되면 해당 지시체가 ‘확인가능’하지만 ‘접근가능’한 상태이다. 그러나 해당 지시체가 술어 앞으로 이동을 하면서 ‘활성’상태로 정보지위가 상승되어 주제로서의 용인가능성이 높아 주제가 된다.¹⁹⁾

빈어가 문두로 전치된 OSV형 문장에서 문두의 NP2성분인 담화에서 주제 지시체의 심적 표상을 살펴보면, 어떠한 형태로 표현되던지 모두 ‘확인가능’하고 ‘활성화’ 중에서도 ‘활성’이라는 정보상태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주제 지시체는 화자와 청자 사이에 공유된 존재로, 주제로서의 용인가능성이 높아 명제²⁰⁾와 주제 지시체 사이의 대하여성(aboutness)이라는 주제 관계

[5]의 ‘天氣預報’는 ‘담화-신-청자-구’라는 정보지위이다. 이 두 정보지위 모두 ‘확인가능’한 정보상태로 ‘담화-활성’의 특징을 지닌다 할 수 있다.

18) ‘He was angry.’라는 문장에서 ‘He’는 이미 알고 있는 정보이기에 의사소통 역동성(CD)값이 가장 낮고, ‘angry’는 새로운 정보로 의사소통 역동성(CD)값이 크다고 하였다. 또 이 문장에서 ‘was’는 계사(copula)로 ‘he’와 ‘angry’를 연결시키는 기능만을 함으로 정보구조의 가치가 없어 의사소통 역동성 값이 0이다. 의사소통 역동성이 낮은 구정보는 의사소통에 대한 영향력이 작고, 의사소통 역동성이 높은 신정보는 의사소통에 대한 영향력이 크다 할 수 있다. (Firbas 1966:240에서 참조.)

19) Lambrecht(1994)가 제시한 ‘활성화’ 중에서도 ‘비활성<접근가능<활성’의 순으로 오른 쪽으로 갈수록 정보지위가 높아지며, 활성화 상태에서도 ‘활성’에 가까울수록 주제로서의 용인가능성이 높아지나, Firbas(1966)가 제시한 CD값이 가장 낮게 나타나 문장에서 문두에 위치하는 경향성을 보인다.

20) 대상과 관련해서 적절한 정보를 담고 있는 것으로 문장이 발화될 때 청자가 이미 알

를 형성한다.

2) SOV형 NP2의 정보구조

SOV형에서 주어(NP1)와 술어 사이로 전치된 빈어(NP2)도 OSV형의 전치된 NP2와 같이 대명사, 명사구, 원형명사형식으로 나타난다.

(1) NP2가 대명사인 경우

- [6] 夏 雪：大猩猩是素食主義者，您這都不知道啊？
 夏東海：咳，這誰知道啊，隔行如隔山嘛！我都不太清楚。
 → (您_i)[[這_z]都不知道啊_f] SOV
 → (這_i)[[誰知道啊_f] OSV

예문[6]에서 夏雪의 발화 중 “您這都不知道啊?(아빠는 이것도 몰라?)”라는 문장이 있다. 여기서 ‘這’는 술어 ‘知道’의 빈어로 주어 ‘您’과 술어 ‘知道’ 사이로 전치되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這’라는 대명사로의 표현형식을 통해 청자의 해당 지시체에 대한 심적 표상이 확인 가능할 뿐만 아니라 활성화 상태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정보상태가 ‘활성’상태라는 것은 주체로서의 용인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살펴본 바 있다. 이러한 점에 따르면 夏雪의 발화 중 ‘這’는 주제일까?

Lambrecht(1994/2000:75)는 관계적 신정보인 화용적 단언에 해당하는 구성성분은 정보가치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발화를 제거하지 않고는 생략될 수 없다고 보았다. 즉, 주체는 문장에서 화용적 전제에 해당하여 주제에 해당하는 구성성분은 생략되어도 담화 맥락적으로 환원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예문[6]에서 夏雪의 “您這都不知道啊? 에 대한 답은 “(這)知道。(이거) 알아”

고 있거나 당연한 것으로 생각할 것이라고 화자가 추정하는 문장에서 어휘 문법적으로 환기되는 문장(Lambrecht 1994/2000:75,438 참조.)

혹은 “(這)不知道。(이거) 몰라)”가 가능할 수 있지만 “我(나)혹은 “這(이거)”라고 대답할 수는 없다. 이처럼 문답 과정에서 관계적 구정보는 생략할 수 있지만, 관계적 신정보로 강조하고자 하는 문장의 중요한 구성성분은 생략할 수 없다. 이에 따르면 ‘這’는 생략이 가능하여 문장의 핵심 내용이 아닌 주제가 된다.

曹逢甫(1986:38-39)는 현대중국어의 주제를 담당하는 성분의 어법 특성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 ① 주제성분은 항상 주제연쇄(topic chain)의 제일 첫 번째 문장 문두에 놓인다.
- ② 주제성분은 임의로 문장에서 분리 될 수 있으며, 여기서 ‘啊(呀)’, ‘呢’, ‘嘛’, ‘吧’ 중 하나와 같이 사용된다.²¹⁾
- ③ 주제성분은 한정적(definite)이다.²²⁾
- ④ 주제성분은 그것의 의미영역을 한 개 이상의 절까지 확장할 수 있다.²³⁾
- ⑤ 주제성분은 주제연쇄에서 동일지시 명사구의 대명사화나 삭제될 수 있다.²⁴⁾
- ⑥ 주제성분은 재귀, 피동, 동일지시 명사구 삭제, 명령문 등의 과정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문장에서 주제가 주어인 경우는 제외)²⁵⁾

이에 따르면 예문[6]의 “您這都不知道啊?”는 ‘這’가 문두의 위치에 놓이지도 않고, 따로 분리할 수 없어서 주제가 될 수 없다. 이에 반해 夏東海의 “這

21) “魚(啊), 現在鮭魚最貴。”, “這個人(啊), 頭腦簡單, 四肢發達。”(曹逢甫 1986:41에서 인용.)

22) “我喜歡看書。”에서 ‘書’는 빈어로 사용되면 비한정 이지만, “書是我的。”의 ‘書’는 주제성분으로 문두에 사용되어 한정적이라는 특징을 갖는다.(曹逢甫 1986:23에서 참조.)

23) 那棵樹 i 花小。 i 葉子大, i 很難看, 所以我沒買。(曹逢甫 1986:41에서 인용.)

24) “梨, 我買了, 你吃了。”이라는 문장에서 주제 ‘梨’가 뒤따르는 문장의 ‘買’와 ‘吃’의 빈어인 ‘梨’를 삭제하는데 영향을 미쳐 병렬구조의 삭제를 가능케 한다.(曹逢甫 1986:31에서 참조.)

25) “張三, 爸爸只顧他自己。”이 문장에서 ‘他自己’는 ‘爸爸’를 가리키므로, 재귀사를 관장하는 것은 주제가 아닌 주어이다. 명령문에서 ‘別來.’라는 문장은 명령문으로 주제가 명령문에 출현하지 않아서 관계가 없다.(曹逢甫 1986:25에서 참조.)

誰知道啊。(이거는 누가 알겠어)”라는 문장에서 ‘這’는 주제의 어법적 특성에 부합한다.

Lambrecht의 문답법을 보면 夏雪 발화 중의 ‘這’는 관계적 구정보인 주제에 해당하고, 어법적 특성에 비춰보면 주제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您這都不知道啊?”에서 ‘這’는 과연 어떤 정보구조로 보아야 하는 것일까?

曹逢甫(1986:31)는 주제 연쇄(Topic Chain, 主題串)에서 가장 처음의 주제가 통제어가 되고, 뒤에 오는 문장의 주제는 생략의 대상이 된다고 하였다.

[7] 他_i 肚子痛, 所以_i 沒看_{我_j} 讀書_j 寫字。26)

예문[7]에서 ‘他’는 주제로 ‘沒看’한 주체인 ‘他’가 생략의 형태로 제시된다. 이는 ‘我’도 동일하게 적용되어 처음 제시된 이후에는 ‘寫字’ 앞에서는 생략되게 된다. 이처럼 주제연쇄에서 가장 처음의 주제가 통제어가 되고, 뒤에 오는 문장의 주제는 생략의 대상이 된다.²⁷⁾

夏雪의 “您這都不知道啊?”라는 질문에서 ‘這’가 주제의 기능만을 한다면 다음 발화에서 “誰知道啊。(누가 알겠어)”라고 ‘這’를 생략한 상태로 답을 하면 된다. 그러나 예문[6]에서 夏東海는 “這誰知道啊(이거를 누가 알겠어).”라고 ‘這’를 문두에 사용하여 답하였다. 예문[6]의 夏東海의 답변에서 볼 수 있듯이 고릴라가 채식주의자라는 내용의 ‘這’는 夏雪의 발화에서 주제가 아닌 초점영역에 해당한다. 즉, “您這都不知道啊?”에서 ‘這’는 초점의 한 부분이지만, 夏東海의 발화에서 다시 ‘這’가 주제가 된다. Lambrecht가 제시한 화용적 전제에 따르면, 夏雪의 발화는 ‘您是 뒤따르는 X의 주제이다.’가 되고, 夏東海의 발화는 ‘這(고릴라라는 초식동물이다)는 뒤따르는 X의 주제이다.’가 된다.

劉丹青·徐烈炯(1998:244)은 초점을 [±현저(突出)]와 [±대비(對比)]라는 특징으로 분류²⁸⁾하는데 ‘주제초점(Topic Focus, 話題焦點)’은 [-현저], [+대

26) 예문은 曹逢甫(1986:25)에서 인용.

27) 曹逢甫(1986:31)에서 참조.

28) 대조초점은 [+ 현저], [+ 대비]의 특징이 있는 분류이고, 일반초점은 문미초점으로 [+

비]의 특징이 있는 분류라고 보았다. 이는 대비성(contrastiveness)은 지니지만 문장에서는 두드러지지 않는 초점으로 문장 내에서 돌출되지 않는 성분이기 때문에 문장 내에서 강조하고자 하는 내용에는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예문[6]의 夏雪의 발화 중 ‘這’는 문장 내 성분인 ‘不知道(모른다)’에 비해서는 두드러지지 않는다. 담화 세계에서 ‘고릴라는 초식동물이다.’를 지칭하는 ‘這’는 대비항이 명시적으로 제시되지 않았지만, 해당 지시체가 문장 밖 담화나 인지 성분과 대비되는 성분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예문[6]의 夏雪의 담화 중 주어와 술어 사이에 위치한 전치된 빈어 ‘這’는 주제라는 특성은 지니지만, 초점영역으로 문장에서 대비성을 갖고 두드러짐(prominence)이 약한 ‘주제초점’으로 보아야 한다. 이러한 주제초점의 대비성은 예문[8]에서 더 분명히 드러난다.

[8] 劉 梅：你說真是的，要來還一塊兒來了。

夏東海：是啊！怎麼那麼巧啊？

劉 梅：你**這個**答應了，**那個**就得答應。

夏東海：沒錯兒，要答應就得全答應，要不答應就全不答應！

→ (你) [[**這個** ㄷ]答應了_f], [[**那個** ㄷ]就得答應_f]

예문[8]의 劉梅와 夏東海는 재혼한 부부로, 본인들의 전 남편과 전 부인이 각자 자신의 자녀들을 데리고 가서 명절을 보내고자 하는 상황에서 夏東海가 전 부인의 요청(這個)을 거절한 상황이다. 劉梅의 두 번째 발화에서 ‘這個’와 ‘那個’는 각각 술어 ‘答應’의 빈어로 술어 바로 앞으로 전치되었다. 이 두 NP2 성분은 모두 지시사를 사용하여 표현되었다. 이는 ‘확인가능’하며 특히 화자와 청자가 해당 지시체의 존재를 모두 공유하고 있는 ‘활성화’ 상태 중 ‘활성’ 상태로 나타난다.

Shyu(2001:107,108,111)는 주어 뒤로 전치된 빈어는 대비의 기능을 가지

현재], [-대비]의 특징이 있는 것이라 분류하였다. (劉丹青·徐烈炯 1998:244에서 참조.)

지만, 주제의 기능은 가지지 못한다고 보았다. 또한 한국어와 중국어에서는 초점으로 해석하게 하는 대조 주제로의 해석이 가능하다고 보았다.

제시된 주어와 술어 사이로 전치된 NP2 성분인 ‘這個(夏東海의 전 부인의 요청)’와 ‘那個(劉梅전 남편의 요청)’는 서로 대비되는 지시체이다. 해당 발화의 전제는 ‘你是 X의 주제이다.’로 문장에서 주제 ‘你’에 뒤따르는 문장전체가 곧 화자가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다. 여기서 ‘這個’와 ‘那個’는 서로 대비되는 항이지만, 더 중요한 내용은 뒷부분의 ‘答應了(답했다)’와 ‘就得答應(답해야 한다)’이다.

(2) NP2가 명사구인 경우

[9] 劉 梅：夏東海，你快幫我拿一下！

夏東海：你這膽量增大了，連老鼠籠子都敢拿了。

劉 梅：你快幫我一下，我不敢睜眼了。

→ (你) [[這膽量] 增大了]

[10] 劉 星：什麼？你們懷疑我？你們憑什麼懷疑我呀？

夏東海：因為就你的東西沒丟啊。

劉 梅：對！

劉 星：誰說我東西沒丟啊？我那塑料飛碟就丟了。我還沒來得及說呢！

→ (我) [[那塑料飛碟] 就丟了]

예문[9]의 夏東海의 발화에서는 ‘這’의 수식을 받아 ‘這膽量’이 주어 ‘你’와 술어 ‘增大’사이로 전치되었고, 예문[10]의 劉星의 마지막 발화에서 ‘那’의 수식을 받아 ‘那塑料飛碟’인 한정명사구가 주어와 술어 사이로 전치되어 표현되었다. 한정명사구 형태로 담화에 제시되었다는 것은 지시체가 문장에서의 표현 형식을 통해 ‘확인가능’하며, ‘활성’된 ‘활성화’상태임을 나타낸다.

이 경우에도 주체로서의 용인가능성이 가장 높은 ‘활성’상태를 보이기 때문에 주체로 볼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 주체라는 것은 발화에서 신정보가 부가

되는 이미 설정된 ‘현재의 관심사’²⁹⁾이기 때문에, 명제가 주제 지시체에 대한 것으로 파악되기 위해서는 화용적 전제의 일부가 되어야만 한다. 다시 말하면 주제가 되기 위해서는 이미 논의되고 있는 대상이거나 문맥을 통해 추정할 수 있어야만 한다.

예문[9]에서 劉梅는 남편 夏東海에게 햄스터 상자를 가지고 와달라고 부탁하자 劉梅가 햄스터 상자도 옮기고 담력이 늘었다고 말하는 상황이다. 夏東海의 담화에서 우리는 화용적 전제가 ‘劉梅는 X의 주제이다.’라는 점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다. 그렇다면 X에 해당하는 ‘담력이 늘었다(這膽量增大了)’가 주제인 ‘劉梅’에 대해 부가되는 관계적 신정보가 된다. 예문[10]은 劉星을 제외한 가족들이 각자 본인들의 물건 하나씩을 잃어버렸는데, 劉星만 잃어버린 게 없어 의심하자 劉星도 플라스틱 비행접시를 잃어버렸다고 하는 상황이다. 劉星의 마지막 발화에서 “我那塑料飛碟就丟了。(나는 그 플라스틱 비행접시를 잃어버렸어)”라는 문장의 화용적 전제는 ‘내(劉星)가 X의 주제이다.’가 된다. 가족들 모두 각자 본인이 잃어버린 물건들을 제시하는데, 劉星 본인도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지를 말하기 위한 발화로, ‘그 플라스틱 비행접시(那塑料飛碟)’는 잃어버렸다는 것을 표현하고자 하였다.

劉丹青·徐烈炯(1998)이 제시한 주제초점의 특징대로 예문[9]의 ‘這膽量’과 예문[10]의 ‘那塑料飛碟’는 담화에는 제시되지 않았지만, 해당 지시체가 문장 밖 담화나 인지 성분과 대비되는 성분이다. 현저성 즉 두드러짐성은 없으나 대비의 기능이 있는 지시체들이다. 또한 주제-평언 구조에서 평언에 해당하는 구성 요소로 초점의 영역에 해당한다. 예문[9]의 ‘這膽量’과 예문[10]의 ‘那塑料飛碟’는 ‘주제초점’으로 문장의 강조점은 해당 주제초점 지시체들의 뒷부분에 해당한다.

정보구조의 핵심은 전달하려는 의도가 가장 집약되어있는 ‘초점’이다. 이것은 문장에서 가장 현저성을 띠고 있으며, 화자가 강조하고자 하는 정보에 해당한다.³⁰⁾ 일반적으로 초점은 문장 말미 초점으로 [+현저]와 [-대비]의 특징

29) Lambrecht(1994/2000:201)에서 참조.

을 갖는다. 술어가 빈어 없이 문장을 구성할 경우에는 술어가 초점이 되고, 빈어를 수반할 때에는 빈어가 초점이 된다.

그러나 董秀芳(2003:12)은 중국어에서 문장성분의 자리 이동으로 초점이 될 수 있는 집합 이외의 성분을 초점으로 만들 수 있다고 하였다. 예문[9]와 [10]은 술어 뒤에 있는 NP2 성분이 전치된 경우로, 문장성분의 자리 이동이 없었다면 이 두 예문 모두 문미초점인 일반초점으로, 빈어가 초점이 된다. 그러나 해당 발화를 한 화자는 빈어를 강조하는 것이 아닌 술어를 강조하고, NP2 성분에 대비성을 부여하기 위해 주어와 술어 사이로 전치하게 된 것이다.

(3) NP2가 원형명사인 경우

[11] 劉 星：哎呀，你們倒是聽我說呀！今天老師車鑰匙丟了，是我給找著的！你們猜我從哪兒找著的？從車鎖上找著的，忘了拔下來了！可是別人都沒想到，就我一人想出來了！

→ (今天老師) [[車鑰匙] 丟了]

[12] 胡一統：那你說，我的照片能在你們家造成什麼後果呀？你連我本人都不在乎，還能在乎我的……寫真？

劉 梅：還寫真呢！

夏東海：老胡話不能這麼說啊！這事恐怕會在孩子中間造成連鎖反應。

→ (老胡) [[話] 不能這麼說啊]

曹逢甫(1986:23)에서는 “我喜歡看書。”라는 문장의 ‘書’는 빈어로 사용되면 비한정이라고 하였다. 즉, 원형명사가 술어 뒤의 빈어 자리에 사용되면 비한정이지만, Li & Thompson(1989/2008:19)에서 제시한 대로 술어 앞으로 위치를 이동하게 되면 한정이라는 특징을 갖게 된다. 또한 이는 Firbas(1966)가 제시한 의사소통 역동성과도 맥락을 같이한다. 예문[11] 劉星의 발화 중 “今天老師車鑰匙丟了。(오늘 선생님은 차 키를 잃어버리셨어)”라는 문장의 ‘車鑰

30) 서진현(2018:37)에서 참조.

匙'와 예문[12] 夏東海의 발화중 “老胡話不能這麼說啊!(老胡는 말을 그렇게 하면 안 되지)”라는 문장의 ‘話’는 각각 술어 ‘丟’와 술어 ‘說’의 빈어로 술어 앞으로 전치되었다. 이 두 예문 중 ‘車鑰匙’와 ‘話’는 비-대명사적 구성성분으로 활성화 지시체라는 특성에 대해서는 무표적이지만, 문장에서의 사용 위치로 보아 ‘활성’ 상태의 지시체를 갖는 것이라 분석된다. 실제로 확인가능성이라는 것은 이미 청자에게 ‘확인가능’하다고 가정되는 지시체이기 때문에 활성화 매개변수 영역 안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車鑰匙’와 ‘話’라는 지시체는 청자의 마음에 심적 표상이 있음을 뜻한다.

문두에 제시된 ‘老師’와 ‘老胡’는 曹逢甫(1986:38)가 제시한 현대중국어의 주제를 담당하는 성분의 어법 특성 중 주제연쇄 제일 첫 번째 문장의 문두에 놓인다는 점에 부합하여 주제라는 점을 명증할 수 있다. 또한 이 두 예문의 지시체가 활성화 상태를 갖기 때문에 주제로서의 용인가능성 또한 높게 나타난다. 예문[11]은 ‘선생님은 X의 주제이다.’, 예문[12]는 ‘老胡는 X의 주제이다.’라는 화용적 전제를 갖는다. 이러한 점으로 미루어보아 두 예문에서 문두의 지시체인 ‘老師’와 ‘老胡’는 분명한 주제라 보인다.

화용적 전제에서 X에 해당하는 내용은 화용적 단언으로, 정보의 신규 관계의 관점에서 보면, 관계적인 신정보에 해당한다. 즉, 예문[11]의 화용적 단언은 ‘X=車鑰匙丟了’가 되고, 예문[12]의 화용적 단언은 ‘X=話不能這麼說啊’가 된다. ‘車鑰匙’와 ‘話’ 모두 대비의 의미를 지녀서 차 주제(Secondary topic)로 볼 수도 있으나, 화용적 단언 범주에 들어가기 때문에 주제가 아닌 초점으로 보아야 한다. 曹逢甫(1986:31)는 “梨, 我買了, 你吃了。”라는 문장에서 문두 ‘梨’만을 주제로 보고, 뒤따르는 ‘我買了, 你吃了.’는 병렬구조로만 제시하고 ‘我’나 ‘你’를 차 주제로 제시하지 않았다. 다만 ‘他連數學都不喜歡它。(그는 수학마저도 좋아하지 않아)³¹⁾’라는 문장에서 대명사 ‘它’를 사용하여 재지시할 수 있는 성분이 주제라고 보아 ‘數學’를 차 주제로 보았다. 남궁양석(2001:102)은 문장 내에서 빈어의 위치에 따른 의미를 논의하며 문두에 놓이

31) 曹逢甫(1986:113)에서 인용.

는 NP2는 일반적으로 한정성을 가지고, 문중에 놓이는 NP2는 대비의 성질을 가진다고 하였다. 袁毓林(2006:21)은 대비라는 특성은 완전성(Exhaustive, 窮盡性)과 배타성(Exclusive, 排斥性)이라는 특징을 지닌다고 하였다. 다시 말해 지시체가 문장 밖 담화나 인지 성분과 대비되는 성분으로, 예문[8]과 같이 병렬구조로 대비항이 제시된다면 더욱 분명한 대비가 이루어지지만, 대비항 없이도 ‘온전히 이 것’, ‘다른 것이 아닌 이것’이라는 범위를 제한하여 대비성을 지니는 것이다.

예문[11]은 劉星이 자신이 오늘 있었던 일 특히나 선생님한테 발생했던 일을 말하는 상황이다. 그러한 과정에서 “今天老師車鑰匙丟了。”라는 문장을 발화하게 된다. 이 경우, 선생님이 다른 물건이 아닌 ‘차 키’를 잃어버렸다는 문장이 되어, ‘車鑰匙丟了.’전체가 평언으로서의 화용적 단언이 된다. ‘차 키’는 이 문장에서 문장 밖 담화나 인지 성분과 대비를 보이는 것으로 문장에서 돌출되는 성분은 아니기 때문에, ‘丟了(잃어버렸다)’라는 부분이 강조점이 된다.

예문[12]는 夏東海의 부인 劉梅의 전남편인 胡一統이 아들에게 사진을 가져다주기 위해 연락도 없이 찾아온 상황이다. 劉梅의 전남편 胡一統이 사진이 무슨 나쁜 뒷일을 만들겠냐며 본인은 신경도 안 쓰고 사진에만 신경 쓴다고 뭐라고 하자 夏東海가 “老胡話不能這麼說啊!”라는 발화를 하게 된다. 이 경우에도 다른 거 말고 ‘話(말)’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문장으로, ‘話不能這麼說啊!’전체가 화용적 단언이 된다. ‘話’는 대화를 통해 알 수 있듯이, 행동은 그렇다 치더라도 말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행동과 말의 대비를 나타내고 있다. 이 경우에도 예문[11]과 마찬가지로 ‘話’가 초점의 영역에는 있지만, 뒤따르는 ‘不能這麼說(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가 夏東海가 전달하고자 하는 강조점이다. 이처럼 청자가 화자의 발화에서 제시된 화용적 전제보다는 대비성을 갖는 ‘車鑰匙’와 ‘話’에 대한 술어인 문장의 말미에 새로움을 느끼고 이 부분에 집중하여 반응하게 된다.

예문[11-12]에 제시된 전치된 빈어 ‘車鑰匙’와 ‘話’는 문장에서의 사용 위

치에 근거하여 표현 형식이 원형명사임에도 ‘확인가능’하며, ‘활성’ 정도를 가진 지시체이다. 또한 외연의미와 명제 사이의 화용적 관계를 고찰한 결과 전치된 빈어 ‘車鑰匙’와 ‘話’는 문장 밖 담화나 청자의 인지 성분과 대비성은 가지지만, 문장에서 돌출되지 않는 성분으로 문장 내에서 강조하고자 하는 정보에는 영향을 끼치지 않는 ‘주제초점’으로 초점영역에 포함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래서 SOV문형 중 ‘O’가 원형명사로 표현되는 경우에 초점은 문장의 말미에 제시되는 술어가 가장 강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4. 결론

이 글에서는 담화 속 무표지 빈어 전치문인 OSV형과 SOV형 중 ‘O’에 해당하는 NP2지시체의 정보구조를 Lambrecht(1994)가 제시한 (1) 확인가능성과 활성화 (2) 주제와 초점에 따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를 정리하면 <표-1>과 같다.

<표-1> 무표지 빈어 전치문 NP2의 정보구조

문형 분류	정보구조 분류	대명사 NP2	명사구 NP2	원형명사 NP2
OSV	확인가능성과 활성화	확인가능, 활성화(활성)	확인가능, 활성화(활성)	확인가능, 활성화(활성)
	주제와 초점	주제	주제	주제
SOV	확인가능성과 활성화	확인가능, 활성화(활성)	확인가능, 활성화(활성)	확인가능, 활성화(활성)
	주제와 초점	주제초점	주제초점	주제초점

OSV형과 SOV형 문장에서 ‘O’에 해당하는 NP2성분은 문장에서 표현 형식에 따라 대명사, 명사구, 원형명사로 구분된다. 그 중 대명사와 명사구는 표현 형식에 따라 담화 지시체의 심적 표상이 ‘확인가능’하고, ‘활성화’상태 중 ‘활성’에 해당한다. 이에 반해 원형명사는 표현 형태로는 ‘확인가능’하지만 ‘접근가능’한 상태로 나타났다. 그러나 빈어가 술어 앞으로 전치됨에 따라 심적 표상이 ‘활성’상태로 정보 지위가 상승하게 된다. 그 결과 전치된 NP2 성분은

모두 확인 가능하며 ‘활성’상태를 지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OSV형에서 NP2 성분은 ‘활성’상태를 지니 이에 따라 주체로의 용인 가능성이 높아져, 문두에 놓여 화·청자 사이에 공유된 지식으로서 화용적 전체에 포함되는 ‘주제(Topic)’로 분석되었다. 이와는 상대적으로 SOV형에서 NP2 성분은 주어와 술어 사이에 위치하여 대비라는 주제적 성질을 가지지만, 주제성분의 어법적 특성에는 부합하지 않고, 화용적 단언에 포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SOV형에서 전치된 NP2는 ‘주제초점(Topic Focus)’ 성분으로 문장 전체의 초점인 문미초점(End Focus)에는 영향을 끼치지 않는 초점의 영역에 포함되어야 하는 것임을 확인하였다. 이처럼 OSV형과 SOV형이라는 서로 다른 문장 형식을 선택하는 이유는 NP2성분을 ‘주제’로 해당 지시체에 대하여 담화를 진행할 것인가, 아니면 초점영역에 포함시켜 ‘주제초점’으로 대비성을 지녀 청자에게 관계적 신정보를 전달할 것인가의 여부에 달린 것으로 분석되었다.

參考文獻

- 고석주 외 역, Knud, Lambrecht 저, 『정보 구조와 문장 형식』, 서울: 월인, 2000
- 김세미, 「현대중국어의 이중 명사구문의 정보구조」, 『중국어문학논집』, 중국어문학연구회, 59호, 2009.
- 김중호, 「現代漢語 ‘NP1+NP2+VP’ 結構中的 ‘NP1’」, 『중국어교육과연구』, 중국어교육학회, 1호, 2005.
- 남궁양석, 「현대한어의 어순연구-정보·초점 구조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대학원박사학위논문, 2001.
- 서진현, 「現代漢語焦點敏感詞研究- 制限性副詞와 語氣性副詞를 중심으로-」, 전북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8.
- 이은경, 「중·한 관계화 제약 화제의 특징과 화제문의 정보구조」, 『중어중문학』, 한국중어중문학회, 제62집, 2015.
- 최윤지, 「한국어 정보구조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6.
- 曹逢甫, 『主題在漢語中的功能研究』, 北京: 語文出版社, 1986.
- 董秀芳, 「無標記焦點和有標記焦點的確定原則」, 『漢語學習』, 第1輯, 2003.
- 方 梅, 「漢語對比焦點的句法表現手段」, 『中國語文』, 第4期, 1995.
- 黃宣範 譯, Charles N. Li & Sandra A., Thompson 著, 『漢語語法』, 台北: 文鶴, 2008.
- 劉丹青·徐烈炯, 「焦點與背景、話題及漢語“連”字句」, 『中國語文』, 第4期, 1998.
- 徐烈炯, 「焦點的不同概念及其在漢語中的表現形式」, 『現代中國語研究』, 第3卷第1期, 2001.
- 袁毓林, 「試析“連”字句的信息結構特點」, 『語言科學』, 第5卷第2期, 2006.
- Betty, Birner & Gregory, Ward, *Information Status and Noncanonical Word Order in English*. Philadelphia: John Benjamins Publishing Company, 1998.
- Chafe, Wallace, Cognitive constraints on information flow, In Russell S. Tomlin(ed.). *Typological Studies in Language*, Philadelphia: John

- Benjamins Publishing Company. 21-52, 1987.
- Firbas, J., Non-thematic subjects in contemporary English, *Travaux linguistiques de Prague*, 2:239-256, An abridged English version of Firbas 1957, 1966.
- Gregory, Ward & Betty, Birner, Information Structure and Non-canonical Syntax, In Laurence R, Horn & Gregory Ward(eds. 2004), *The Handbook of Pragmatics*, New Jersey:Blackwell Publishing, 2004.
- Knud, Lambrecht, *Information Structure and Sentence Form: Topic, Focus, and the Mental Representations of Discourse Referents*, Cambridge :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4.
- Li, Charles N. & Thompson, Sandra A., *Mandarin Chinese: a Functional Reference Grammar*,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89.
- Prince, E. F., The ZPG Letter: Subjects, Definiteness, and Information-status, in Mann, W. and S. Thompson (eds.), *Discourse Description: Diverse Linguistic Analyses of a Fund-raising Text*, Amsterdam : John Benjamins, 295-325, 1992.
- Shyu, Shu-ing, Remarks on Object Movement in Mandarin SOV Order, *Language and linguistics* 2, 1:93-124, 2001.

Abstract

A Study on the Information Structure of NP2 of unmarked object-preposing sentences in Mandarin Chinese

Seo, JinHyeon

This study analyzed, according to Lambrecht(1994), NP2's (1) identifiability and activation (2) topic and focus of unmarked object-preposing sentences. NP2 components corresponding to 'O' are classified into pronouns, noun-phrases, bare nouns according to the expression form in the sentence. Among them, pronouns and noun phrases correspond to the 'active' state among the 'activation' states that the mental representation of the discourse participants is 'confirmable' according to the form of expression. On the other hand, bare nouns are found to be 'accessible' although they could be confirmed in the form of expression. However, because of the location of NP2 in sentences, the information status rises to the 'active' state.

In particular, in the OSV-type, the NP2 component was analyzed as a 'topic' included in the pragmatic presupposition as knowledge shared between participants in discourse. In SOV-type, the NP2 components were located between subject and predicate, and had the thematic property of contrast, but were not included in the pragmatic presupposition. In other words, they were found that the 'topic-focus' component does not affect the real focus in the sentence which is the focus of the entire sentence but should still be included in the focus area.

Key words : Mandarin Chinese, Unmarked Object-Preposing Sentence, Information Structure, SOV, OSV, NP2

투 고 일 : 2022. 4. 10. / 심 사 일 : 2022. 4. 15.~ 2022. 5. 15. / 게재확정일 : 2022. 5. 20.